

프, 자동차부품 수입 요구

한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와 관련

프랑스가 韓國產 자동차의 수입확대와 관련, 국내자동차 업계에 프랑스產 자동차부품 수입을 요구하고 나서 우리 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프랑스 무역진흥기관인 CFCE가 오는 4월 8일 파리에서 韓國과 프랑스 자동차산업간 협력방안을 모색키 위한 회의를

갖자고 제의해왔으며 이 회의에서는 韓國업체들에 대한 프랑스產 자동차부품 구입요청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업계는 프랑스의 부품 수입요청이 국산자동차의 현지시장에 대한 수출확대와 때를 같이하고 있어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오히려 이같은 움직임을 활용, ◀현지의

수입 규제조치를 사전에 막고 ◀선진 자동차부품제조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프랑스에 아직 진출하지 못한 업체들의 진출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내업계는 지난해 프랑스에 첫진출, 연말까지 모두 4천4백13대 3천2백여만달러어치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日, 對韓 무역의존도 격감

산업연구원 분석

우리나라의 日本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日本의 우리나라에 대한 의존도는 크게 낮아지고 있어 양국간 무역불균형 심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韓·日 경제의 의존실태에 따르면 韓·日 양국간의 무역상호의존도계수는 지난 88년 기준으로 0.009로 나타나 같은해 韓·美간의 상호의존도계수인 0.0025에 비해 거의 4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韓·日 양국

간의 높은 상호의존도는 우리나라의 日本에 대한 의존도가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일방적인 무역의존도계수는 지난 80년의 0.1395에서 88년에는 0.1588로 높아졌으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도는 80년의 0.008에서 88년에는 절반수준인 0.0041로 크게 낮아졌다.

양국의 쏠산업부문에서 최종 수요가 한 단위가 증가했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입유발계수도 우리나라의 對日 수입 유발계수는 지난 70년의 1.3997에서 87년에는 1.8982로 높아진 반면 日本의 對韓 수입유발계수는 0.019에서 0.2642로 우리나라의 對日 계수가 7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상대국의 최종수요증가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도 日本이 韓國보다 훨씬 높아 이같은 현상을 뒤받침하고 있다. (♣)